



내년에 다시 풍성한 한가위가... 16일 제주시 동문재래시장은 코로나19에 북상중인 태풍 '찬투'까지 겹치며 한산해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2년 가까이 이어지는 감염병 상황으로 도민들도 시장 상인들도 힘겨운 지금, 하루 빨리 이 상황이 진정돼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코로나 추석에도 관심은 '양대 선거'

여·야 예비경선 한창... 본선 진출 예측 화두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들 얼굴알리기 본격

정권 심판론과 정권 재창출론을 전면으로 내세운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후보 경선 시계바늘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관련기사 2-3-6-7면
 추미애·이재명·이낙연·박용진·김두관(기호 순) 후보가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예비후보를 결정하는 지역순회 경선 초반전을 마쳤다. 추선연휴가 끝나는 직후인 25·26일 치러질 전라북도 경선 호남지역 경선이 결선투표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역 경선은 10월 1일로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1차 컷오프에서 대선 예비후보를 8명(안상수·원희룡·유승민·윤석열·최재형·하태경·홍준표·황교안(가나다순))으로 압축했다.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는 10월 8일 발표할 예정이다.
 빨라진 대선시계에 맞춰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출마 예비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18일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를 맞아 제주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와 도의원·교육의원 예비후보들이 유권자와의 밀접촉빈도를 높이는 등 민심잡기 보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후 80여일만에 치러지는 선거로 새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중앙당 차원의 총력 지원이 예상된다.
 특히 무주공산이 된 '도백' 자리를 놓고 여야 후보들간의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의 도지사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당 공천권 확보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예비후보들은 지난달까지 권리당원 모임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사고당으로 지정됐던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외부수혈을 통해 직무대행을 임명하고 조직정비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제주도당은 인적쇄신이 없을 경우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허향진 전 제주대학교 총장을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영입했다. 제주시에서는 16년 동안, 서귀포시에서는 20년 동안 단 한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난 패배를 설욕한다는 각오다.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로는 현재 16명 가량이 자전타전으로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재호(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의원·문대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 3선의 박원철 도의원(한림읍)이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인 허향진 전 제주대학교 총장과 윤석열 예비후보 대선캠프(국민캠프) 고경실 제주선거대책위원장, 홍준표 예비후보 'JP희망캠프' 김방훈 제주선거대책위원장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용철 공인회계사와 김의근 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도 출마의향을 밝혔다.
 정의당에서는 고병수 전 제주도당 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임공동대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이외에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제주시 부시장을 역임한 오홍식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안동우 제주시장도 등판을 준비하고 있다.
 3선에 도전하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대항마로 고창근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전 교육의원, 김장영 교육의원, 김창식 교육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원은 도내 31개 선거구에서 100여 명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당내 경쟁을 펼치고 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 코로나19 누적 확진 2755
 16일 17시 기준

태풍 '찬투' 오늘 제주 상륙

오전 8시 최근접... 강도 '중' 비는 17일 오후부터 그칠 듯
 연휴 기간 대체로 맑은 날씨

제14호 태풍 '찬투'가 출근 시간대 제주를 강타하겠다. 태풍이 지나간 뒤 맞는 추석 연휴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전망됐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찬투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서귀포 남남서쪽 약 27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8km의 속도로 북북동진하고 있다. 중심기압 980hPa, 강풍반경 280km, 최대풍속 초속 29m로 강도는 '중'이다.
 태풍 찬투는 17일 오전 3시 서귀포 남남서쪽 약 110km 부근에 위치하겠고, 6시간 뒤에는 서귀포 동남동쪽 약 5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하겠다. 제주와 가장 근접하는 시간은 17일 오전 8시로, 이 때 세력은 중심기압 980hPa, 강풍반경 280km, 최대풍

속 초속 29m의 강도 '중'을 유지하겠다.
 이후 태풍 찬투는 17일 오후 3시 남쪽 약 150km 부근 해상을 거쳐 다음날인 18일 새벽 일본 오사카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겠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는 17일까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비는 17일 오후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보인다.
 태풍이 지나가고 맞는 추석 연휴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됐다.
 태풍 찬투가 동쪽으로 빠져나간 직후인 18일부터 20일까지는 고기압이 영향을 주면서 대체로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어 추석 당일인 21일 오전부터 중국 내륙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태대 '찬투'의 영향으로 16일 오후 5시 기준 국내선 15편(도착 12편, 출발 3편)이 결항됐다. 승은범기자

"거리두기 4단계 잊지 마세요"

연휴 특별방역대책은 오는 26일까지 적용

제주지역에서 오는 2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는 동시에 26일까지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이 적용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오후 6시' 전후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여부에 따라 나뉜다. 백신 완료자는 2회 접종 후 14일 경과자다.
 우선 1차 접종자·미접종자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허용된다. 오후 6시 이전엔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가능하며, 오후 6시 이후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오후 6시 이후엔 미접종자가 2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식당·카페·가정에서만 6인 모임이 허용된다. 야외·골프장 등 타

시설에선 불가하며, 다중이용시설 제한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간은 직계가족의 '가정 내 모임'에 한해 접종완료자 4명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뿐 아니라 친인척, 며느리, 사위 등도 포함된다.
 영유아도 모임 인원 수로 산정하지만, 영유아·노인·장애인 등 돌봄이력에 대해선 예외가 적용된다. 가정을 제외한 곳에서 8인 모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26일까지 방문 면회가 허용되며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 완료 시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밖에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토·수요일 신문 쉬고 목요일자 발행합니다

명품클럽 메이커
hopeman.kr
Hopeman & Maruyama **제주대리점 모집!!** (제주시,서귀포시)

국내 유일 독점 공급업체 **(주)호프만** 제주시 노형동 265 T.1522-4080